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자멘호프博士를 懷함

六十六回誕辰에

자멘호프博士는 世界語라는 通稱을 가진 에스페란토語의 創案者다. 아마 博士는 人類가 일즉 産出한 가장偉大한 天才요 理想家中에 하나일것이다. 그는 六十平生을 에스페란토語와 에스페란토主義에 바치고 一九一七年 그의 生命을 아피던 歐洲大戰이 아직 씃나는것을 보지못하고 貧窮한 眼科醫면서 同時에가장 高貴한 聖者의 生活을 마치왓다.

博士는 一八五九年 今日에 波蘭의 一小邑비알리스토크의 貧寒한 猶太人인 中學校敎師의 第一子로 태어낫다. 博士는그의 性情을 그母親에게서 밧고 그의 知能을 그의父親에게서 밧고 그의 民族的鬪爭의 印象을 그 故鄕에 바다서 이세가지가 合하야 그 天才를 일웟다고한다.

博士의 故鄕인 비알리스토크에는 리트브人, 波蘭人, 猶太人, 俄羅斯人이 모양으로 民族과 宗敎를 달리하는 種人이 雜居하엿고 그中에 俄羅斯人은 다른三民族의 統治者인 地位에 잇섯다. 그런데 이 民族들은 恒常 서로 猜忌하고 疑心하고 讒誣하고 逼迫하기를 말지아니하엿다.

博士가 六歲되엿슬때에 波蘭이 露西亞帝國에 對한 第二革命이 닐어나고 그地方 諸民族中에는 鮮血과 敵愾心이 橫溢하엿다. 이에 露政府는 波蘭에 居住하는 異民族中에 巧妙히 離間策을 利用하야 以夷制夷의 利를 圖하엿다. 이때문에 리트브人 波蘭人 猶太人間에 相互의 反目嫉視가 더욱 甚하여지고 따라서 流血의 慘을 演하는 大小의 衝突이 不絶하엿스며 特히 아라사人은 이것을 利用하야 高壓的으로 異國語와 異宗敎를 壓迫하엿다.

『이것은 아라사땅이니 아라사말을 써라!』하고 아라사憲兵이 市場에 食買하려들어오는 農民들을 毆打하엿다는것은 博士가 少年時代의 述懷中의 一節이다.

博士가 一九〇六年 제네바에 열린 에스페란토大會에서 한演說中에 이러한句節이 잇다―

『不幸한 나의 故邑의 市街에는 도끼와 몽둥이를 든 野蠻人(아라사人)들이 달려들어서 아모러지도안는 住民을 襲擊하엿다 이 住民들의 唯一한 罪는 그네가 이 野蠻人들의 國語와 다른 國語를 쓰고 野蠻人들의 宗敎와 다른 種族的宗敎를 밋는것뿐이다 오직 이때문에 그들은 女子와 衰弱한 老人과 可憐한 小兒의 頭骨을 바스고 눈알을 째는것이다』

이러한일이 엇지 波蘭에만 잇섯스랴 世界到處 所謂 帝國主義가 行하는곳마다 이러한 慘劇이 數업시잇섯던것이다 새로운것이 아니다 우리의 記憶에도 아직도 새로운것이 만히 잇다.

엇지하야 사람이 사람을 이러케 서로 虐待하는고? 그 理由를 자면 民族이 民族을 嫉惡하고 虐待하고 壓迫하는 이곳에 차잣다. 『可憎한 惡人들이 各々 自國民에게 거즛말과 讒誣를 傳播하야 傲慢과 敵愾心과 猜忌를 激發하엿다 그러나 만일 各國民間에 (言語라는) 障壁이 잇서서 彼此의 自由로운 交通을 障碍하지 아니하엿던들 그리하야 各國民의 各員도 自國民의 各員과 꼭가튼 人情과 理想을 가진 사람인줄을 알앗던들 惡人들의 거즛말과 讒誣가 이러토록 무서운 結果를 生하지는 아니하엿슬것을』 이것이 우리 자멘호프博士로 하여금 그의 六十平生을 世界共通語인 에스페란토의 完成에 바치게한理由다.

그러타고 各民族이 各自의 國語를 廢하라는뜻은아니다 各民族은 各自의 國語를 保持하면서 弱小國民이 强大國民의 國語를 學習하고 使用하는 羞恥와 苦痛을 免하고 오직 自國語와 貴重한 世界共通의 에스페란토만 배호면 足하도록 하자는것이다. 時代는 아직 이러한 時代에 出現하지아니하엿다 그러나 이미 數百萬의 各民族의 男女가 에스페란토語와 에스페란토主義의 旗幟下에 모혀들엇고 우리 朝鮮에도 이미 數百의 에스페란토主義者가 생겻다.

우리는 人類의 恩人인 자멘호프博士의 誕辰을 祝하는 이날에 速히 各民族의 子女들이 사랑하는 自國語와 世界語인 에스페란토만으로 서로 意思를 通하는 世界一家主義인 에스페란토만을 배호는날이 니르기를 心祝하지아니할수업다.

英佛協定成立說

紐育『트리분』紙倫敦特派員所報에 依하면 英國總選擧前 英佛兩國의 解決策으로 英佛兩國政府間에 左의協定이 成立되얏다더라 (紐育十一日發)

一、루-ㄹ占領의形式을 罷하며 財政經濟的管理에 止하야 英國을 參加케할事
二、如斯한管理를 獨逸의承諾을得하야 獨逸의他地方에도 及하야 國情의改善을 圖케할事
三、佛國은『라인』地方에在한分離派의支持를中止하고 其代에 英國及白耳義의保證을得하야 同地方을獨逸에 屬한自治領으로할事
四、聯合國의『라인』地方占領을 永久의것으로하되 佛軍을占領軍의主力으로함과 同時에聯盟에對하야 責任을負할것으로할事
五、聯合國은若獨逸이攻勢的行爲에出할時는直히共同干涉을行할事
六、佛國은『라인』地方倂合의意思를拋棄할事
七、英佛兩國은陸軍海軍空軍을合한軍事同盟을締結할事
八、新通商條約에調印하야 特히英國首相『볼드윈』氏가總選擧에 勝利를得한境遇에實施할保護關稅에 關하야 協定할事
九、獨逸賠償金總額을 三百億金貨馬克으로減할事
十、英佛兩國은歐洲의外交 特히地中海沿岸에關한外交에關하야 充分한諒解를遂할事

露佛關係再開要求

―勞農露西亞는佛國에對하야 頻繁히 非公式의使者를派遣하야 外交關係의再開를要求하얏스나 佛國은從前과如한條件을固執하는中이더라 (巴里十三日發)

墨革命軍의猛進

進軍途中의一切都市占領

西部海岸掃蕩

―『가려쓰』報道及『아리조나』의所報를綜合하면 墨國叛軍이墨西哥의西部海岸을掃蕩하얏다稱하는것은事實인듯하더라 (紐育十三日發)

二千餘名으로成한墨西哥革命軍은南方『데리르리모』州『레퓌크』市의北方인『시나론나』及『소노라로』州를占領코자目下進軍中인대途中一切의都市를占領하야頗히敏捷히北進하는中이라더라 (아리조나十二日發)

在米墨領事革命派命令拒絶

―紐育에在한墨國領事는叛軍의首領으로부터『베라크쓰』發의無線電信을接受하야今後는革命派外務長官의指揮를受하라한것인대同領事는此를拒絶하얏고墨國代理大使는目下各領事에對하야革命派의訓令을無視하라警告하얏더라 (紐育十二日發)

獨經濟助力呼訴

獨逸은墺大利와同樣으로國際聯盟에對하야經濟上의助力을呼訴하리라더라 (伯林十三日發)

英勞黨組閣準備

勞働黨執行委員은同黨에서新內閣組織의命을受할境遇에는直히此에應하기를勸告한決議를可決하얏더라 (倫敦十二日發)

獨立內閣組織聲明

―勞働黨理事會는若勞働黨이內閣組織의大命을拜하면直히全責任을負하고單獨으로內閣을組織할지오決코聯立內閣은組織치아니하기로決議하얏더라 (倫敦十二日發)

總選擧再行準備

―勞働黨及保守黨本部에서는各其總選擧再行의準備에着手하얏는데此總選擧는來年初夏頃에行하게되리라더라 (倫敦十二日發)

볼氏留任은想像外

―英國首相『볼드윈』氏留任은一般豫期에反하엿슴으로佛國에서는遺憾으로思하더라 (巴里十三日發)

獨逸國民의自覺

獨首相『마쓰』氏談

獨逸首相『마쓰』氏는一般外國記者와會見하고左와如히語하얏더라 (伯林十二日發) 國民中一小部分은至今外지獨逸이戰敗하야其全國形勢가如何히되얏는지를未知하얏섯던바獨逸이戰敗에精神上責任을引受하얏다는事實에이난지라內閣은義務를遂키爲하야全力을盡할意思이라

米委員參加拒絶

賠償專門家委員會議에

賠償委員會의米國非公式傍聽人『로간』氏는十一月三十日에創設計劃된專門委員會의事業에米國의專門家를參加케할意思가有한意를發表하얏스나華盛頓政府는正式代表者를送하기不能하다附言하고現在의狀態로는英佛兩政府間에直接協定이成立될形勢가無한바若全然成立되지못하면又復互相間의衝突이起하리라하얏더라 (巴里十三日發)

外交團의共同回答

廣東事件質問에對하야

英、日、米、佛、伊五個國公使는廣東事件에關한中國外交部의質問에對한共同通牒으로五個國政府는外債의擔保인海關稅를擁護할目的으로必要에依하야軍事行動을取코자廣東에軍艦을集中하는中인意로回答하얏고此五個國軍艦外에米國軍艦의『폭렌』及六隻의米國驅逐艦이馬尼拉을發하야廣東에向하얏더라 (北京十三日發)

『稅關保護는權利오且義務』

―外交團은十一日午後八時中國政府에通牒을送하야外交團은中國의內政에는干涉할意志가無하나廣東의稅關을押留치못하게하도록保護함은外交團의權利이며且義務이라고通告하얏더라 (北京十二日發)

普通罪人特赦願

東三省犯罪人代表는全國三十萬의普通罪人特赦件을參議院에請願하얏더라 (北京十二日發)

蘇浙戰機 遂히成熟

江蘇浙江兩省의平和運動은失敗에歸하야開戰은今에時間問題가되얏다江蘇軍은陸續宜興方面에輸送되야其數가約一旅團에達하얏는데福建省浦城의報道에依하면福建督軍孫傳芳麾下의福建軍約一師團은遂히浙江省境에向하야進軍을開始한바先發隊臧致平兵約三大隊는旣히浦城에到着하얏고浙江軍은目下軍隊를派遣하야江山地方防備를鞏固히하는中인대蘇浙戰雲은漸次濃厚하야지는中이더라 (上海十二日發)

直派密偵逮捕

奉直和議는進行中이나直隸派는依然히密偵을奉天에派遣함을止치아니한結果十二日에도又一名의密偵을逮捕한지라奉天側에서는近々直派密偵專任搜査員을任命할터이라더라 (奉天十二日發)

吉黑開拓計畫

張作霖氏는吉林及黑龍의兩省을開拓키爲하야資金百萬圓을支出하야奉天省으로부터移民五十萬을殖할計劃이라더라 (奉天電)

政府對政友策

攪亂運動開始

政府는十三日午後七時衆議院本會議散會後院內總理大臣室에서緊急臨時閣議를開하고十三日의衆議院議場에서惹起된內相彈劾[illegible] (東京電)

質問論戰은中止

十五日부터는豫算委員會

衆議院은大體의質問은十四日中에終了하고十五日부터는豫算委員會에서再議하리라觀測되더라 (東京電)

政友幹部軟化

黨員은依然强硬

政友會幹部의態度는最初에는强硬하얏스나近日에漸次軟化되는傾向이有한바此는閣公으로부터何等의斡旋이有한듯한데幹部의態度는如斯함에反하야黨員間에는反政府熱이高調하야此際에猛烈히政府에對抗하다가解散을當하는것이勝算이라는聲이漸高하는觀이有하더라

會期延長確定

在米日本人國籍脫離法案은今期에도提出하기로

衆議院은施政方針에對한質問을終了치못하고十四日에도繼續하기로하고復興豫算案은十七日에上程하야豫算委員會에付託하고同日午後本會議에서는保險問題의曲折에關하야二十日까지紛糾를演出할狀勢인즉二十二日의三日間에는上院의審議를終了가不可能할것은明白하야會期延長은確定的事實이라더라 (東京電)

國籍脫離法案

通過確實觀測

在米日本人은徐々히歸化하야米國에서生한日本人일지라도米國市民이되지못하는境遇에는日本의法律에依하면徵兵의關係로米國에出生한日本人이라도十七歲부터兵役의義務가終了하기까지는日本의國籍을分離치못하게되야結局二重國籍이되는것이라今日의土地所有法에는在米日本人에對한重大한日貨인대特히法律의改正을求함으로外務省에서는在米日本人의徵兵關係로米國市民은日本國籍을離脫하는法案을作하야來通常議會에提出하게되얏는데右法案은通過되리라더라 (東京電)

米國와서

十五 張德秀

七八日동안을 하날과 물과 구름밧게는 보는것이 업시 單調하게 次々 航海를 繼續하야 오다가 배에서 떠러지는 무슨부스러기들을 주어먹으랴고 날나오는 검정水鳥는고래도보게되고 배에서 물나오는 것을 보게되야 사람이 사는 대륙이 가깝다는 생각이 나는同時에 이제는 陸地가 갓가운 慰安이 생기고 이런模樣으로 航海를 繼續하기를 사흘동안을 한 뒤에 五月 초생의 엇던날아츰 오늘아츰에 하와이를 불수가잇다 하는말이 뉘입에서 나온말인지 船中에 퍼졋다. 어린아해들은 망원경을 들고 나오는 사람 모자를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一二三等을 勿論하고 甲板가에 그득히 찻다 나도 勿論 그中에한사람이다. 大洋을 航行하야 오다가 陸地가 보인다는 말을 듯고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수밧게업는 안한말인것을 알것이다.

아니오 구름가치 뵈이는 것이 하와이 가아니오 陸地가 보이지마는 구름가치 멀니뵈이는 것은 하와이가 아니다 한사람이 손구락으로 망원경을 들고 건듯 멀니뵈이는 그엿헤 하와이 섬인데 하와이섬이다 그것이 하와이 섬이다.

그곳이 그곳 섬이오 섬이야, 자기것이 하와이가아닌가 하는 사람이 잇다. 푸른 동군동산으로 變하더니 얼마後에는 다시 구름으로 化하야 바다속으로 드러가고 말더이다. 船員의 說明을 드르매 그것이 하와이 群島의 하나는 하나이 分明하나 우리가 가는 그섬은 아니라고 한다.

水平線우에 면줄것흔 검정줄기가 生겨나고 얼마後에는 그것이 起伏線으로 變하고 또얼마後에는 살가치 다라나는 우리배압헤 한줄기 泰山줄기가 變하야서는 한뭉텅이 泰山뭉텅이가 바다우에 웃둑서게되더이다.

그것이 오아후섬 太平洋의 樂園이라는『오아후』섬 우리는 說明할사록 煩說이라나 一갈나는 湖水 가치 드러가는 그 泰山뭉텅이에서 뻐쳐나오는 山비탈이 나무수풀로 나타나고 漸々 砂糖工場의 煙氣를 뿜는굴뚝이 보이게되고 수풀사이에 散在한 가옥들이 한집 두집 보이더니 이제는 市街地도 分明히 뵈이는 하와이 호놀루 港口에 드러왔구나 하는 生覺이 가슴에 넘치더이다.

東亞漫畫

『요것이 新家庭인가』 投稿歡迎 (漫畫 一枚) 內容 淸新한 것

自由鐘 投稿歡迎

投稿規定 一行十四字計算으로六十行以內에限함 ◆紙上匿名은無妨하나本社外지氏名과住所를要함 ◆皮封에는『自由鐘』原稿라朱書함을要함

黃鶴亭人

◇나는 日前아침 弼雲臺에 올낫다가 黃鶴亭압뜰에 무슨野菜나 草花를 심고 나무가지에 매달녀잇는것을 發見하엿슴니다

◇射亭밧게는 人家라고업는 이山中에 그것이 무엇인가하는 一種의 好奇心으로 그곳을차저간즉 射亭近處에서 아이들 말소리와 우숨소리가 재갈々々 나니다 이소리가 어데서 나는가하고 보니 이소리가 나는 곳은 四十歲假量의 男子하나이 머리에 手巾을 동이고 허름한洋服에 脚絆을 친 사람이 떼메고 기여나와서 지게를 지더니 터벅々々 걸어갓슴니다

◇이윽고 그 뒤를 딸아 나아가 보니 雨傘과 치료장수의 짐짝이 노여잇서 아무런지 이마루밋헤 住接하는 食口가 잇는것은 明白하엿슴니다

◇關聯을뭇고보니 한便에는 지게가 세워잇고 또한便에는 寢具가 잇고 그곳은 東便으로 부터 出入口인것 가탓슴니다

◇나는 그곳에 한家族이 잇는것을 알고 그 家族이 사는 樣이 어떠한지 알고 십헛슴니다 黃鶴亭마루 밋헤서 나오는소리 뭇고 그것이 千字읽는 소리가튼 『하늘天따地』하고 거즛읽는 소리엿슴니다

◇나는 그뒤의 形便을 알고 십흐나 알수업서서 나는 그것이 구경거리가 된다고 함니다 아니외다 그러한 形便이 어데잇슴니까

◇나는 近日의 所謂 中流社會의 사람들이 사는 모양을 생각하면 中人이나 兩班의 子女들은 놀고먹는 階級의 사람이 되어서 國家에 對하야 아모 利益도 주지 못하고 그네들의 子女가 放蕩하야 그 財産을 蕩盡하는 꼴을 보면 이 黃鶴亭 마루밋헤 사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훨신 나은 사람들이라 하겟지요

◇그것이 時代의 落伍者인것이 아니냐 그러고 이러한 生活을 하는 이가 생기는것이 時代와 더부러 生活難이 甚한 現代의 必然한 産物이니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것이 아니고 同情할것이외다 (社稷洞人)

駐京露國領事

日露關係 如何로 撤出

在朝鮮露國領事의 帰國問題는 目下 東京에서 露國大使館의 命令으로 閉鎖된것을 淸津元山의 兩領事와 京城의 領事가 撤去하게 되얏다고 이제 元山 等의 『소코로도므츠』氏도 歸國케 되얏다 京城領事館의 諸氏와 그 家族은 日本의 國情에 對하야 京城을 떠나기로 되엿다

國境撤守延期

(東京電)

航空施設計劃

朝鮮軍은 中來로 不斷에 朝鮮國境에서 兵員의 減少와 같이 國境의 守備를 强化하는 計劃이 잇섯스나 軍部側은 國境守備隊의 撤去를 延期하기로 決定하엿다

消息

◇時實京畿道知事는 日下 中旬에 上京하야 道評議員 等을 十五日夜 千代本에 招待

橫說堅說

◇稅務行政獨立의 結果 『人民의 負擔은 多少 增加하겟지마는』 이것은 府稅가 아니라 公平하야지는 外에 賦課가 아니라 『賦課公平』이라는 것이 『府稅』의 別名인것은 今日에 始한 事가 아니다

◇年末의 奔忙한 째에 妓生을 優待한다고, 떠드는 朝鮮의 文化警察官들의, 警察部長들의 무슨 意思인지

◇五十歲 未滿의 無期徒刑 囚은, 秦天의 張作霖이 女囚의 이 고락을 同情하야 一週一次 夫와의 宿泊을 許하얏다 한다. 一週一次라는 節候의 標準은 何處로부터 出來?

◇瑞興刑務分所에서는, 京都本願寺로부터, 부처님을 모셔왓다 한다, 부처님의 게무슨 罪가 잇는가

◇日本人官川某가, 歐洲各國에서, 大規模의 『모루히네』密輸를 行하다가, 倫敦에서 禁錮 三年, 滿期後 追放의 判決을 바닷다면, 文化政治의 朝鮮에서 行하얏드면, 科料 二十圓으로 넉々 하얏지

英雄 길도

松竹社 特作 全十卷

◎十二月十二日(水)부터

光의大洋

米國 유니버살 特作 全七卷

夢의審判

米國 오스토나 會社特作 大作品 全六卷

團成社

電話 光化門 九五九

平民宰相

米國 유니버살 特作 全七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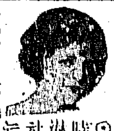
性

또왓느냐

素人俳優

朝鮮劇場

京城府仁寺洞 電話光化門 九八四番



肉職

[illegible]

代理店 主任 及 事務員 募集

希望者는 履歷書에 返信料 添付 至急 申込하라

次第 規約書 送付

京華洋行

貿易商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 電話 六一九

鼻耳內服藥 지구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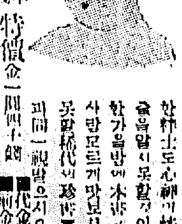
蓄膿症……肥厚性鼻炎

東京 三鱗堂藥社 山岸天佑堂

柳彦作 戀のぬれ鳥

젊은사람, 獨身의人은不可讀!

發行所 愛文社書房



東洋木

東洋染織株式會社

改良한 衣服次 特價提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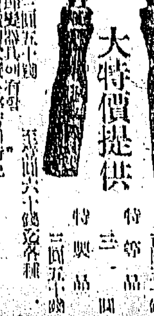
生活改造와 消費節約 衣服改良을 實行하자면

司元村筆吉商會

理髮機具販賣大擴張

外面刀其他附屬五品無代進呈

大特價提供



家庭에업지못할常備神藥

方名	定價	効能
解熱散	二十五錢	[illegible]
祛痰散	二十五錢	咳嗽、百日咳
寶丸	二十錢	消化、[illegible]
健胃固腸散	二十五錢	[illegible]
含嗽藥	二十錢	[illegible]
驅梅膏	二十錢	下疳、[illegible]
百應膏	二十錢	[illegible]
開明水	二十錢	[illegible]
電氣丸	[illegible]	[illegible]
金鷄蠟丸	二十五錢	[illegible]
神効膏	二十五錢	[illegible]
ダルマ膏	二十錢	[illegible]
大塚胃散	二十五錢	[illegible]
驅虫散	二十五錢	[illegible]
萬能液	二十五錢	[illegible]
沃度丁幾	二十錢	打撲傷、[illegible]
治癩球	[illegible]	[illegible]
根治丸	[illegible]	[illegible]

製造發賣元 京城南大門通四丁目 救世藥館

世界語創案者『자』博士誕生日

금일은 세계어(世界語)『에쓰페란토』를발명한『자멘호프』박사의생일이다 박사는파란(波蘭)에국적을두엇든『유태』사람으로 일천팔백오십구년십이월십오일에 파란비얄리스토크에서 빈한한교사의아들로태여나서 평생을에스페란토를만들고 인류주의를선전하기에받치엇다 일천구백십칠년에 고향에서장서하니 림종하기까지 안과의업을직업을삼엇더라 (사진은자멘호프박사)

府營長屋內生活面 (三)

艱難이極한 下流의生活

약간외상으로사라가는 한달에구원식쓰는살림

◇하류생활 ▲직업은 양복견습 ▲가족은 주인(五五)안해(五五)아들(一〇) ▲수입은 일년한수입 림시수입 구원 ▲표준은 십월한달동안 살림

한달에 구원수입으로 세식구가 살아간다한은 실로수입이 업는이만도 더욱비참한일이라 업스면 업거니하고 업든것만 쉬어할뿐이려니와 날마다

한 줌 의 쌀을가지고 세식구가 서로얼굴을 처다보게되는 그들의가슴이 얼마나쓰릴것이랴? 하류계급중에도 가장헐벗은살림을하는 이사람은 [illegible] 약장사를하얏섯다 그리하야 한동안은굼지안코 살아왓스나 불행하게도 비참한운명은 늙고어린 이세식구로하여곰 집도업고 세간도업고 팔아먹든 약도업는 알몸들만남고 말앗다 이리하야 류리걸식하나 다름업는살림으로 한두벳씩는 고사하고 수삼일식 호떡두세개로연명하여지내기가한번이나두번도아니엿섯다

그러나 모진목숨은 쉬어지지 아니하야 몃달전부터 이당옥의한간방을엇고 위선직업이라고 양복견습을하여오나 이로써 생기는수입이라고는 동전한푼이 업다 다만다 업서진세간중에서 행여나 엇던가하고남겨두엇든

문 서 책 한권을 쥐어들고 나날마다 시내로 돌아다니면서 약간외상을 바더들이여 생기면 먹고안생기면 굶어 [illegible] 『풍권의동화』가튼살림이나 실상이구원이란돈푼도 이러케 어든수입이다 이러코보니 집세의 독촉이아모리심한들 엇지하며 던등료수도된들 무엇으로갑흐랴? 세간비용도업고 의복비용도 신발갑도 아모것도업다 자식이 잇스나학교에 보내지아니하니 연필갑한푼이나 조희갑한푼도업다 먹고십흔 담배도못먹거니 술갑가튼것이야 더욱업슬것이며 리발료나 비누갑이나 연극장구경가튼것은 이름도모르는터이다 하로종일놀아다녀도

면 차 타 는일이업고 한달설흔날하루를지나여도 잡비한푼을쓰는일이업다 오직쓰는돈이 쌀갑과 나무갑이니 한달동안쌀일곱번을팔아 오갓이 륙원삼십삼전어치엿다 그리고 네번에륙십사전오리어치의팟과콩을사왓섯다 소곰네번에십삼전어치도 막대한비용이며 단한번을사먹은오전어치의돌고기와 십칠전어치의 [illegible]

비 지 도 더먹지못하게되얏다 사치는고사하고 절약할여디도업는이가튼살림에도 한달[illegible] 구권의이비용도 심상한것이아니엿다 그리고 더욱일금삼권이란양초갑이 쓸데업시 지출되야 [illegible] 고기반찬은 너무나 황송스러운일이엿다한다 [illegible] 이밧게도 엄청난비용이 [illegible] 하나님이여 이불상한 인생을구버보소서!(옷)

怡隆洋行을중심으로

림시정부원합의설 폭탄을가지고왓단말

최근만주로부터 오는 정보를종합하야보면 모다 상해림시정부원이 안동현을중심으로 온다는소식인데 그중한두가지를소개하면

一, 림시정부간부 장린수(張璘洙)외몃여섯명은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를연락하기위하야 지난십구일상해를떠나이십이일관뎐(寬甸)에도착

二, 상해정부간부김용원(金庸元)은 부하수십명을거나리고 정부의 신임장(信任狀)을가지고 군자금모집하기위하야 지난달이십팔일 대파산(大派山)으로부터 조선내디에

三, 상해정부간부림득산(林得山)오인석(吳仁錫)외수명도 통의부와련락하기위하야 이십륙일안동현사하진복긔호(安東縣沙河鎭福記號)방에도착

四, 상해정부특파원김동일(金東日)외네명은정부의경고문(警告文)을가지고 지난달이십팔일안동현 륙도구(六道溝)로부터조선내디에 잠입

이상여러가지소식이잇는데 여하한지랑자상해에 밀행하여든 간부몃명도 지난달 중순에 안동현에돌아와서 이륭양행(怡隆洋行)에숨어잇스면서 부하

십 여 명 육석혀 무리를 휴대하고 룡암포(龍岩浦)신의주(新義州) 등지에 들어오게하얏다는 소식도잇스며 그양행의뎜원도 얼마전상해에가서 폭탄이십여개를휴대하야왓다는 풍설도잇다더라 (모커경보)

崔振東의勢力

삼분구를근거로한독립단 동녕현삼분구(東寧縣三岔口)부근에잇는 조선독립단들은 모다최진동(崔振東)의부하로 현재고안촌(高安村)에잇는조선인경영의 귀독교회부속초등학교(初等學校)를본부로하고 그부근인가에 흑은이삼명씩흑은삼사명씩머물러잇스며 삼분구현아에 류치중이든강국모(姜國模)의부하도 최진동의부하가되얏는데 현재 칠백명이나된다더라(모커경보)

警察의口頭受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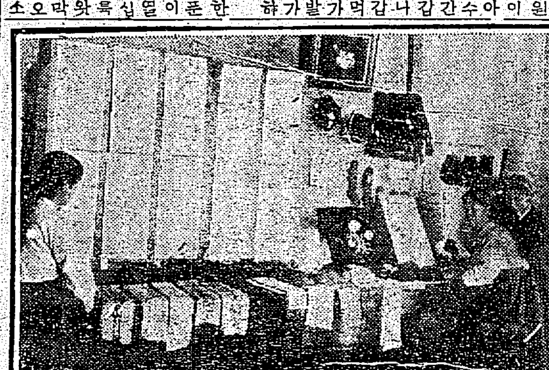
특별한것만신청서로하고 사소한일은구두로도

지난십이일에 발표한 경긔도훈령데이십구호 구두수리규뎡(口頭受理規程)에의하야 이케로부터는 각경찰서에 데출하는신청서는 특별한경우 즉다른곳으로경유하야가는것이나 또는총독에게 사기타관청으로돌녀보낼것에한하고 그외사소한일에는 구두로나혹은뎐화로신청을하야도 관계업게되얏다더라

金始顯의絶食斷行

뜻아닌감옥생활에분개하야십이일부터

폭탄을가지고 조선안에 드러왓다가 필경은사실이란로되야 징역십년의 선고를밧은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인 의렬단 수령(義烈團首領) 김시현(金始顯)은 자긔의계획이 쌔여지는동시에 신산한 『텰창생활』을하게된것을 개탄하야 다못 이가치의미업는생활로서 십년의 긴세월을 참아보낼수가업다고 자긔의친척들이 면회를가게되면 항상이야기를하든바 요사이 일으러는 일긔도춥고 또는감옥의대우도 심히가혹함으로 필경은자긔의본뜻을 실행하라는 결심인지 지나간십이일부터 십사일아참까지 다섯끼나 밥을먹지아니하엿다는데 갓득이나 수척한그의몸은 수척할대로수척하얏스며 그의가족들은 심히 근심중에잇다더라 (사진은김시현)



◇금일에열리는명신학교면람회◇

시내련지동에잇는명신녀학교에서는그학교녀학생들의손으로악리와기타를설비하기위하야녀학생의고흔손으로만든물건과학예품의뎐람회를금일오전아홉시부터연다 [illegible]

行惡하든假刑事

행수군서부에게잡혓다

고양군룡강면동막하리(高陽郡龍江面東幕下里)김평사(金評事)라하며 [illegible]

昨曉에凍死者

[illegible] 취조중인데 여죄가만흔모양이라 압혜서 엇던남자한명이 작일치위에 그만얼어죽엇다 그는일뎡한주소가업시 이리저리로배회하며 여름에는 [illegible]

年賀狀은

즉접우편소로 가져오면편리

[illegible]

目으로도傳染

무서운肺病은

일본에서처음발견 [illegible]

出獄日에窃盜

도적질에익숙한자

[illegible]

聖經은世界語로

[illegible]

鷄龍山記 (十三)

變하기잘하는世人!

「알뜰한『內地』式」

『안내』라고어더케쓰나요 부자집령감가튼주지스님

우리는 동학사를떠날적에 만우로인더러 『갑사에가서 니야기나할만한이에게 소개장을하나써줍시오』하엿다 로인은 『니야기할만한이가 업지오… 지나보시랴거든봅시오』하고 자긔방으로들어가 한참이잇다가 오더니 『요새에새문자로 안내라는말이잇습지오 안내라고 엇더케씁니가』한다 『새문자는웬차즈십닛가 녯날쓰던대로 써줍시오』하며나는슬쩍 다씨(氏)는던(殿)으로변하고 근함은요리로변하고 호남(湖南)령남(嶺南)은남선(南鮮)으로변하고 서도디방(西道地方)은서선디방(西鮮地方)으로변하고 관북(關北)또는북도(北道)라는말은

요 보 식 이라하야 북선디방(北鮮地方)이라하고 이모양으로쏙『내디식(內地式)』이되어야만행세를하는 이때에 녯갑자년부터 살아오는만우로인이 차지도새문자를써야만 만족하는모양이다 이리하야 『此去先生主를善爲案內之地』라는 명함에쓴소개장을 바닷다 중이면속청을안쓰고 『釋』이라는한자를쓰는일은 서가무니부처님의 명하신게면마는 서가무니 부처님의 명령도 『내디식』은 견듸지못하야 만우가튼이조차도 김금(金)이라는성을쓰게되엿다 이러케되면 중들도두루마기를신고 양복을입고 마누라를두고 딸을두고 술도자시고 고기도자서도 관계치안코 집에서자식새끼 오종종부치옷에얼는장삼만 닙으면그리고 법당에들어가서 『옹도로도로』나부르면 오계를새트린모든죄도 항하수흐르는물에 말끔히 씻겨버리는것이마치 씨드른컴렌를 양재人물에 살마싸는것과 가튼것이라한다 개명한세상은 진실로고마운세상이다

『한화휴뎨』하고만우로인의이소개하는 명함은그리 큰효험이업섯든 모양이어서 우리일행은

하 인 들 의 방으로안내를 밧게되엿다 [illegible] 방人바닥은 더우나이상한 내와 빈대등쌀에 피곤한몸이엇마는 잠을 이룰수가 업섯다 그래도명함의 공덕이 아주업지는아니하여서 령감마님가튼주지스님 부자스집 령감마님가튼 주지스님이 한번차자왓다 『나도서울사라요 내본집이돈의동(敦義洞)에잇지오』한다 [illegible] 주지스님의 본집은 [illegible] 에 잇고

적 은 댁 이 서울에잇다 고한다 그러나이것은엇던로인이하는소리요 주지스님이친히한말은아니다 큰댁적은댁이잇다하더라도 그것이무슨불명예가될리는업다 어느컴벌이나경찰법에 그에관한 조문은 업는모양이요 또그가 주지스님인것을 보건댄 사찰령에도관계가업는모양이다 이튼날 아츰에 주지스님은한번더 우리를 차자주엇다 『재판소관리들이 무엇을조사하노라고 메칠새나와잇지오 그때문에……』하고 심히 미안해하는빗이 보인다

구 찬 혼 빗이 보인다 [illegible] 주지스님은 『하로 더 묵어가시지 아즉도 비가오는데』하고 간곡히말류하건마는 우리는비를들쓰고 련봉(連峰)을향하야 떠낫다 아츰아홉시(一記者)

日人漁場員의惡行

『갈물』을간장이라고속인 독이잇는물에소곰을석거

人夫와漁場事務員이大格鬪

울산군강동면정자리(蔚山郡江東面亭子里)에잇는 일본인이등장지조(伊藤庄之助)의 어장사무원 화뎐신태랑(和田新太郞)(二七)은 재물에욕심이낫든지 흑은일부러 조선사람을 죽이고자함인지 작년팔월부터 『갈물』(독이잇는그물염료)을 소곰에 혼합하야 가마에살인후 그어장에서 일하고잇는 조선인 십여명의게 간장이라고속여 먹여는데 이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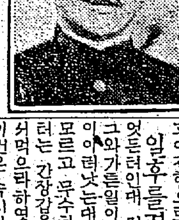
모 르 고 먹 은 조선인부들은 곳배가압흐기시작하야 흑은 토하며얼골과온몸이붓고 흑은열병으로만알앗더니 증세가 하도이상하얏슴으로 여러가지로 조사한결과 전긔화뎐의 소위인줄을 알고 곳담판을하려갓더니 화뎐은 처음에는 사실을부인할뿐아니라 도로혀인부들을 구타하엿슴으로 큰격투가이러나자 화뎐은 사세가리롭지못함을알고 사실을자백하고 다시는 그와가튼일은 하지아니 할터이니 이번만용서하여 달나고애걸함으로 순박한그인부들은

일후를경 계하고 그만두엇든터인데 지난팔월경에 다시그와가튼일이발각되여 또큰싸홈이 이러낫는데 화뎐이는엇지할줄 모르고 무수히애걸하며 지금부터는 간장갑을더로줄터이니 사서먹으라하엿스나 그인부들은 이번은 속지안켓다하며 한편으로그어장주인되는부산에잇는 이등씨의게 련명결의서를 보내고 또한편으로는당국에까지 수속을할작뎡이라더라(울산)

安鳳春은逮捕

어린아해파라먹은범인은 필경본뎡서에데포되엿다

시내종로통륙뎡목 장석렬(張錫烈)씨의딸 뎡자(貞子)(五)를 꾀여다가중국인에게파라먹은범인 안춘삼(安春三) 또는안봉춘(安鳳春)(三五)이라는 두가지 일홈을가진자로 재작십삼일에 본뎡서원에게 데포되얏는데 공범자가 다수한모양임으로 [illegible] 목하엄중취조중이며 그자의원적은 충청남도례산군청산면산곡리(忠南禮山郡靑山面山谷里)이요 현주소 [illegible] 일백사십오번디인데 현주소에는 친부그갓혼아마의 무리의 소굴을 이루엇든것이라더라



留置中縊死

대판에서잡힌조선인이

[illegible] 중에데포된것이라더라

晉州市를騷亂케한 殺人未遂强盜

고향친구가돈안쥬여준다고 가치자다가돌연히란자하여

深夜의怪聲 同是洛陽人

자든사람이피투성이 반가운친구인가?

지난십일밤 령시삼십분경에 진주군(晉州郡)진주면(晉州面)평안동(平安洞)오백이십이번디 조덕심(趙德心)(五一)의집에서는 엇던사람이 피투성이가되야 길가에서 사람살려달나고 소래를 지르는통에 그이웃에서는 잠을 이루지못하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일변응급치료를하고 진양(晉陽)의원 의사의게 수술을바다 거우정신을 차리게되얏는데 자세한 내용을 듯건대

경상남도 남해군(南海郡) 읍내 서변동(西邊洞) 거주하는 한태호(韓泰鎬)(三一)는 일전에 진주에볼일이 잇서서왓든바 지난십일 진주성외(城外) 우편소압헤서 그의친구되는 동군(同郡) 심천리(深川里) 거주하는 정한민(鄭漢珉)(三一)을 맛나매 [illegible] 한민이란자는 자긔가 계란(鷄卵)장사차로 진주까지왓스나 [illegible]

적 은 댁 [illegible]

舟中이皆敵國

정한민을데포

[illegible]

血鬪後始覺

지갑업서진것을

무수히란타하는통에두손으로 그의가진칼을잡으려다가두손가락에 [illegible]

嗚呼子女들

보통학교의부족과유지난

◇보통학교가부족하야학령에달한우리자녀들이 열에하나도 입학하기가 어려운데 엇친데 덥치기로 그적은보통학교나마 유지하기가어렵다고한다 그러면 인케부터는 보통학교가늘어가는대신에 줄어갈모양인가

◇웨보통학교가부족한가 웨유지하기가곤난한가 돈이업서서그러타고한다 웨보통학교아이들이 중도에 퇴학을하게되나 그것도돈이업는까닭이라한다

◇돈이업기는 피면업다 총독부에서세납으로거더가는돈은 한면에 하나씩 순포막을짓기에 다들어가고 생도들의학비는 총독부세납과 진고개장사아치에게로 다드러가니 돈이업기는업슬것이다

◇이러케햇스면 엇덜가―각면에하나씩지어노흔 순포막을 보통학교교사로 [illegible] 하고 헐일업서 도라다니는순사등을 보통학교교사를 만들엇스면엇덜가

◇아니다 만일순사나리들이 교사가되엇다가는 아이들이 싸가기사마나배호고 동네어른발길질하기나 배호면엇지하나

◇아서라모도다 쥐담이다 우리끼리나를악물고 배호고일해서 돈을만히벌자 그래서우리힘으로 조흔보통학교를한만개나세우란다

主人의貯金千六百圓을가지고도주한자

필경종로서에잡혓다

시내수정동(水晶洞)[illegible]번디한규방(韓圭邦)의양자한선호(韓善鎬)(二一)는 시내남대문통(南大門通)사뎡목재등(齋藤)씨의집에 고용되야잇는판교송(板橋松)의집에고용되야잇는중 지난십월[illegible]일 하오한시사십분경에 주인이 [illegible] 현금 일천륙백원을가지고 도망을한후 그간종적을감추엇더니 재작십삼일밤열시경에 시내자교(紫橋)파출소부근에서 종로서원에게 발견데포되야 목하종로서에 인치취조중인데 그자는돈을가지고 즉시간도(間島)방면으로 가랴고 원산(元山)까지갓스나 무서운마음이 나서 다시경성으로 도로와방황 [illegible]

二十圓을뭐아라

[illegible]

暗夜에閃刃

자다가봉변

[illegible]

賭博이犯罪動機

[illegible]

食刀로질럿다

범인은파인정한민

[illegible]

한디개업의불평

不平 投稿歡迎 不平은實例에限함

[illegible]

◇휴지통▲경상남도울산에서는 일본인어장에 사무보고잇는일본인이 조선사람 인부에게 『목긔를』이는것을간장이라고먹이어 여러사람을중병들게 하엿다한다▲어대서는 남더러 우둔하다는 [illegible]

부득이한일이오

(일의생)

[illegible]

歲暮特價賣出 共進商店 京城鍾路二丁目十九番地 [illegible]

天下名藥 滋力素 腦病·神經衰弱·陽氣不足其他諸般氣虛症 許多한新藥에 [illegible] 內外新藥商會 京城鍾路二丁目 [illegible]

大補湯 六味湯 八味湯 倍四物湯 雙和湯 益氣湯 理中湯 肥兒湯 水土湯 六味丸 朝鮮商會 京城府授恩洞三十二番地 振替京城一〇二八番

寫字生 三友社 大阪

痳疾과梅毒 [illegible] 高麗商會

歲暮特價賣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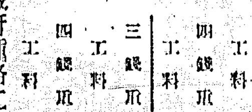
獨逸染料 第一安心되고 善良한品을廉하게買할수잇슴!! 獨逸顏料商 德國顏料廠 毛糸 各種新輸入發賣함

한번걸니면곳칠수업난 ◎중풍병 신구적병 ◎일절담병 양긔부족 이외기타여러운병을명년이곳되야와서 하남전문의원 慶南晉州郡晉州面大安洞 汾陽醫院 告白

大正十二年十二月十二日發行東亞日報第一千二百一號第二面 [illegible] 廣告中取締役頭取金商變은金商燮의誤植이기玆에訂正함

歲暮特別大賣出 十二月末日까지

最新流行眼鏡



四方形 二圓形 指環

最新流行眼鏡 二十金 十八 十六圓 金張 四圓 銀 三圓 赤銅 三圓 一圓五十錢 寶石入 八圓

瑞西製十八金 寶石入 二十四圓 瑞西製銀 寶石入 二十圓 瑞西製 寶石入 十二圓 瑞西製ニッケル 寶石入 十一圓

三錢重 十五圓九十錢 工料 二圓 四錢重 二十一圓二十錢 工料 一圓五十錢

京城府鍾路二丁目六番地 晋信堂時計舖 主 李錫杜 電話光化門八八三番 振替京城二八五一番

"Voice of The Twenty Million"

THE DONG-A ILBO.

SEOUL, KOREA, SATURDAY, DEC. 15th, 1923.

DR. ZAMENHOFF'S BIRTHDAY.

Dr. Ludwig Zamenhoff, the author of Esperanto, was born on this day in 1859, a son of a poor Jewish pedagogue in a Polish town, Byalistock. The world is now celebrating his 64th birthday, six years after his earthly death which occurred in 1917. Byalistock has been inhabitated by diverse nationalities such as the Lithuanians, Poles, Jews and the "bear-like Imperial Russians."

These peoples were incessantly suspecting, abusing, persecuting each other on no other account but their difference in nationality and creed. "When the boy Zamenhoff was six years of age in the city of Byalistock," Mr. Edmond Privat says in his "Life of Zamenhoff", "the second revolution had just been ended leaving after it blood, tears, bitter animosty all over the region."

"Divide ut imperes" was the official system of the Russians who by themselves played the leading part in most of the blood-shed among these wretched races. Dr. Zamenhoff himself says: "In my native town, the savages (Russians) armed with axes and clubs threw themselves upon the peaceful inhabitants, whose only culpability was nothing but the fact that those peoples happened to have their own mother-tongue and their own creed different from those of the savages. Merely on this account, they were smashing the skulls and gouging the eyes of men and women, of the decrepit old and the helpless infants."

Our Doctor has ascribed the cause of all these things to those "abominable criminals who, by means of the craftiest and meanest methods, are disseminating voluminous falsehood and calumnies, purposively creating terrible animosity among different races." But all this might have not been able to produce such terrible results only if "there were not the unsurpassable barriers between the nations, which prevent them from communicating freely with each other and from seeing that the others are human beings as much as themselves:... Down with the barriers between the nations!"

Dr. Zamenoff found his life-long duty in the working out of an international language for which he had dedicated his whole time and energy. His work is successfully gaining its foothold in all civilized countries, enlisting millions of men and women under the green starred emblem of the Esperantist humanitarian "Regno."

In celebrating the birth day of this great man, we earnestly hope that the day will soon come when children of every nation may no longer be humiliated by being forced to learn any foreign language but Esperanto besides their own.

英 文 欄
世界語創設者誕生日紀念

平南道評議會 第三日(十三日)

去十三日午前十時四十分米田議長開會를宣하고前日에繼續하야豫算案審議를始作하다. 安州李寅彭君이前日에繼續하야順川山林問題에對한勸業課長의答辯을敵하며反駁說明하얏는대米田議長은此問題는他機會에論議하기로하고本議案에對하야討議하라하얏다 … ▲李象均君(成川) 模範林經營豫定地 …

民大咸平郡部 盛況裏에組織

咸平에서는今般民大中央部執行委員李中成白南震兩氏가當地에出張함을機會로咸平青年會館內에서去十日午後八時에青年會主催로咸平郡地方部組織大講演會를開催하얏는데會衆은數百名에達하야大盛況裡에靑年會長李職氏開會辭로李申成氏의趣旨說明에滿場人士는無限感動되야即席에서咸平郡部組織을一致可決하고 … (平壤)

商校年限問題 急速實現은困難

江景公立商業學校는大正九年三月에從來의簡易商業學校를變更하야郡의經營下에朝鮮人日本人共學公立商業學校로하고授業年限二個年으로하얏든것을同十年四月에更히內容을變更하야道의管轄下에三個年制로現今에至하얏고 … (江景)

朝鮮史概講(六六) 杜桂生 李丙燾

第二篇 中古史
第九章 高麗朝(續)
(八)鄭派의末葉(續)
池潤燾의亂平定後와李仁任의專權 … 高麗王朝의運命에는 …

間島協成中學

間島局子街商埠地에新設된私立協成中學校는設立된지不過數個月에學生이一百五六十名에達할뿐아니라一般職員諸氏는不顧寒暑하고獻身努力함으로校況의 …

成川民大成績 會金二萬餘圓

民立大學期成會成川地方部에서는各幹部가猛烈히活動한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繼續活動한結果二萬餘圓이란巨額의入會金을募集케되야其一部를紹介하면入會人數와金額은如左 …

平壤鍾普木材 九分割引으로妥協

平壤府外에서平壤鍾路公立普通學校와隔離病舍를新建築하는데使用할材木을當林廠과契約하얏는데去十一月中에材木價格이高騰되야本來價格으로支給할수가업다하야平壤府에交涉談判을開始하얏는바 … (平壤)

江景의面目一新 防禦水道完成在邇

忠南江景은百里廣野를西枕한故로每年七八月이되면洪水로因하야全市가安穩치못하게됨을一大遺憾으로여기던官民一同의同心協力으로 …

江景水道進捗 明年三月竣工

忠南江景은朝鮮三大市場의三으로新時代의趨勢에並駕키爲하야온갓施設이其緒에就할當地官民一同이協心共力한結果인中自古로飮料水의不良으로都市로의發展에不少한缺陷이잇슴을恨하야水道設置의巨役을斷行하기로하고昨年五月工費三十六萬五千圓으로起工하야明年三月에竣工할豫定인바工事는着々進行하야 …

浦項有志篤志 慶北浦

項永興女子夜學校는設立된지五個星霜에女子敎育界에多大한貢獻이잇섯스나校財가업서서敎會와社會의協力으로 … (成川)

光東義塾有望

本年四月에當地人士諸氏가光東義塾을設立한後 … (信川)

義成塾同情金 黃海道

信川北部面西湖里義成塾은創設以來四個星霜에 … (浦項)

手形交換增加 元山手

形交換所의十一月中交換高는枚數六千三百四十六枚金額百四十六萬四千五百五十二圓인데前月에比하야 … (元山)

元山苦學相助

市內各公私立學校에在學中인苦學生二十餘名은今般苦學生相助會를組織하고 … (元山)

軍隅河川堤防 平南价

川郡外西面軍隅里는安滿道路의終點이되야 … (价川)

木浦石海航路 全南靈

巖郡石海浦及木浦間은元來交通機關이完備치못함으로 … (元山)

南浦防火夜巡 鎭南浦

義勇消防隊에서는冬期間의火災를豫防하기爲하야夜巡을開始코자 … (价川)

古水修養夜學 全北高

敞郡古水面修養會에서는勞働夜學을四個所에分置한바其狀況을略記하면如左하더라 … (木浦)

魚商禁酒斷煙 群山港

에잇는鮮魚商들은今春以來魚商仲介組合을組織하고營業方針을改善하는同時에 … (鎭南浦)

兩文廟新學議 唐津郡

唐津沔川兩文廟에서는去五日各其明倫堂에儒林多數가集合하야 … (高敞)

永淸學院曙光 平南平

原郡永柔面에잇는永淸學院은 … (群山)

面文籍講評會 价川郡

廳에서는面行政事務刷新과進步改良의目的으로 … (唐津)

水道調查終了 平壤府

廳에서는去七月中에水道基本調査 … (永柔)

崇德校에夜學 定州郡

 … (郭山)

元山新電通話 元山市

內今年度增設電話는旣報와如히 … (元山)

唐津에自衛團 當郡內

各里에서는歲暮를臨하야强竊盜를豫防키爲하야 … (唐津)

高興女學續開 全南高

興邑長老敎靑年勉勵會主催로 … (高興)

梁文夜學設立 抱川郡

永中面梁文里有志金柄梅氏는去一日부터當地에勞働夜學會를開設하고 … (抱川)

統營最近戶數 統營郡

은原來人多地狹하야總面積은僅히六萬町步에不過하나戶口는比較的過多하야總戶數二萬三千十九戶總人口十二萬五千八十七人에達한다고(統營)

元山犯罪統計 咸興地

方法院元山支廳管內各警察署에서本年一月부터十月까지檢擧한 … (元山)

少年書畫展覽 去八日

下午八時當地敎洞天道敎宗理院內에서少年會事業의一 … (元山)

畜產模範部落 全南高

 … (不明)

尹氏賭租減執 全南

 … (海南)

价川物產時勢 平南价

川邑內去八日(陰十一月一日)의特主時勢는如左 …

● 价川防火設備緊急 …
● 宋氏寄附 京城宋鍾憲氏는 …
● 抱川林野査定公示 …
● 元山府收入印紙發行 …
● 李氏의同情 …

質疑應答

一、「質疑」는日常生活에關係잇는事에限함
一、「應答」은總히本欄으로外發表함
一、「質疑」는葉書에限하야必히朱書로「質疑係」라明記할事

(問)妾子나、婚姻이나、모다屆出主義를씁니까?그리고、萬若屆出이無하면、民法上效力이、發生치아니합니까?(市內諸進洞王泉生)

(答)民籍令이、撤廢되고、戶籍令이發布된후로부터、妾子나、婚姻은、屆出主義를쓰고、屆出이無하면、民法上效力이發生치아니합니다(京城地方法院裴民事判事談)

英語講義錄

本會擔任先生諸氏
中央基督敎青年會學館 李
京城培材高等普通學校敎師 崔
京城私立中東學校敎師 尹
京城私立徽新學校敎師 李
京城英語專修學院敎師 李
源 在 鶴 泰 興 桂 祥 憲 奎 洪

會則은無代進呈함(但會則請求時는二錢切手를要함)
京城府長沙洞二二九番地
朝鮮通信英語普及會
振替口座京城二七八三四番

來하라!! 來하라!! 來하라!! 本會에來하라!!
朝鮮文으로된平易簡明한

實地應用柔術獨習 附寫眞

健康第一
珠玉의美를자랑하지말고
몬저健康의美를貴重히여기시오
森永ミルクチヨコレート
모리나가 미루구 쪼고렛-트
MORINAGA'S MILK CHOCOLATE
森永製菓株式會社

朝鮮銀行
總裁 美濃部俊吉

朝鮮郵貯運用 狀況

改善할點과研究할問題

過般全鮮에亘하야行한貯金宣傳時의預入金은遞信局貯金管理所發表에依하면百萬圓이라稱하는바今에同所調査에依하면十一月二十日現在朝鮮郵便貯金現在高는二千一萬四千七百六十三圓인데例年十一月下旬으로年末에亘하야多少減少하엿다가年初부터再次伸長하는狀態이다此는金融機關의通例이나郵便貯金에至하야는其性質上多少緩慢한事인바此郵貯二千餘萬圓은一時大藏省預金部에收納하나朝鮮開發을爲하야特히此等은殆히全額을朝鮮에還附하야事業

資金 으로五分乃至七八分의低利로融通하는것인데其總額은千八百二十五萬圓이며內容을示하면左와如하다

金融組合	八百六萬圓
旱害救濟費	三百九十萬圓
産業開發資金	百七十五萬圓
水利組合	九十三萬圓
地方債	四十九萬圓
漁業組合	二十九萬圓
普通學校組合	四萬圓
其他	二百七十九萬圓
計	一千八百二十五萬圓

此等郵便貯金의放資에關하야某氏는左와如히語하더라

元來郵便貯金의性質上此等全部는卽無產階級의粒々辛苦로貯蓄한零細한資金이다그러나그金錢의

運用 에就하야는當局者의意見에依하는것임으로當然此運用狀態에對하야注意를必要가有하다假令朝鮮의金融組合資金融通八百六萬圓、旱害救濟費三百九十萬圓等과如히一般庶民特히無產階級과密接한關係가有한데에融通한다하면預金者의趣旨에適合할지모르나先年日本에서問題가된바如히一營利事業에巨額의資金을融通함과如한것은回收가容易하다하더래도富益富로數名의資産家를利롭게하는것인즉斷然코不許할것이다

朝鮮 에서도其運用方法이良好하다고肯定키不能할뿐아니라「其他二百七十九萬圓」이라함은如何한方面에運用한것인지改善의餘地가多할것이며研究할問題이라云々

年末市況

歲末도逐히切迫하야各商店의歲暮賣出도一齊히開始되고市中은一層의緊張을加하야本町南門通을爲始하야各市街는年末景況이橫溢한모양이나아즉餘日도相當히有함으로中旬後가아니면實際의景氣를알수업다各商店의狀況으로보면關東震災와財界의將來警戒로因하야可及的消費節約과虛禮廢止의必要를認定하얏음으로

市況 은그리良好하지못한模樣이다現在商品券을發行하는小賣商店은三十四五個所로昨年年末發行高二十七八萬圓의槪算에比하야今年은三四割減少하리라十萬圓內外에止하리라고豫測되며더욱히商品券에依한年末贈答은平均一類商店은十圓假量이엇스나昨今은平均七八圓임으로其差額도相當하게만흘것이다歲暮賣出開始와共히顧客도相當히잇는모양이나殘存品과廉價物의賣出이多하고高價品、奢侈品은

昨年 의三分之二에不過하며더욱季節品인衣服品과雜貨品에至하야는消費節約의影響이濃厚한모양이다그러나昨年은中旬以後의賣出이豫想外의良好를呈하얏슴으로今年도아즉은確實히豫測할수가업스며或은年末賞與의散布로多少間의活氣를呈할는지未知이다그다음에外上貸金回收에關하야는一般消費者의金融逼迫으로如意치못할것임으로二類以下의商店들은益々困難을不免할것이다그러나今年은米、綿의增收와比較的高價를維持하는株主側의好況을反映하야

今後 도高價를豫想하야金融이圓滑하되면農作物의出廻도相當히有하야地方去來는旺盛하리라고觀測되는바昨今京城到着의貨物이例年에업는大量에達한것은地方側의買入을豫想하는同時에商品界의好轉을示함이아니냐고觀測하는者도有하더라(京城商業會議所調査)

商品貸出 漸次減少

京城商業會議所의調査에依한十一月中京城各銀行의商品擔保貸出金은總計六十四萬四千九百五十七圓으로十月中에比하야七千三百十九圓의減少이며此를擔保品所產別로보면朝鮮產品擔保貸出은四十六萬五千八百九十五圓輸移入品擔保貸出은十七萬九千六十二圓으로十月中에比하야前者는八萬四千六百二十八圓의增加이며後者는九萬一千九百四十七圓의減少인데此를品別로示하면左와如하더라

生産品	
粗	二、一〇〇圓
玄米	三二、六二
白米	九〇〇
大豆	一七三、九八一
牛皮	四四、六二三
雜穀	三九、五六二
麻布	三、八八〇
朝鮮紙	五、三〇〇
木材	五〇、三九〇
麥	一、八一二
綿布	九、〇六八
其他	一〇二、〇一七
計	四六五、八九五
輸移入品	
粟	二、〇〇〇
砂糖	九、二六二
綿絲	三、六五五
絹布類	三三、五八七
棉布類	九二、四四六
農具	二〇、六七二
其他	二八、四〇四
計	一七九、〇六二

京取와商品取引

某消息通談

京取昇格問題에關하야釘本長天日常次郎氏古城管堂氏와政黨者가牧山耕藏氏를介하야交涉한다함은疑心할餘地가업스나다만釘本天日兩氏가門司에서廣岡氏와會見하얏다함은虛報와如하며牧山氏와會見한데不過하다는데釘本氏는昇格에對하야될수가잇스면米와綿絲布의取引도當所에包含한一大取引所로하자는希望을持하고從하야資本金도現在의五百萬圓을一千萬圓이나一千五百萬圓에增大한다함도以前의無增資昇格論을翻變한것인바此는前述한商品取引을包含한外에政黨者流가東京에서運動하는京城株式商品取引所에對抗하야或은拂込資本金의一部를運動費에充當하려는魂膽인지未知이며商品取引所는三年前綿絲布의分으로當業者가請願하얏고米는仁取가잇스는一方에京城의米穀商도請願하얏슨즉此를交涉하야一旗下에集合함은매우難關일지나다만天日君이仁取監査役과米穀組合長의椅子를占하고잇는것이一縷의信賴이라하겟더라

財海餘波

▲朝鮮內의郵便貯金은最近調査에依하면總額이三千一萬餘圓이라는데그中에三十萬日本人의預入金額이一千七百五十萬圓이요一百二十餘萬人의朝鮮人의預入한것은二百五十餘萬圓에不過하다한다▲이것으로만보더래도如何히朝鮮人의經濟力이貧弱한지를알것이다▲그러나所謂朝鮮人의生活의餘裕가업는가를爲하야融通한다는郵便貯金의低利資金은如何한方面으로流用되는가別記한바에依하야明瞭하다하려니와朝鮮人은그나마便宜라도몇푼엇치나잇는가▲朝鮮銀行은又復窮狀을暴露하야滿洲銀行에서斡旋하야合同되減配하게되얏다한다▲朝鮮銀行과窮狀暴露는적지아니한因緣이잇는模樣이다

滿銀窮狀暴露

旣報朝鮮銀行의態度에依하야奉天、遼東、大連、滿洲商業의四銀行이解散하고新히滿洲銀行名稱下에合倂한當時에中村滿銀頭取는株主側의質問에對하야一割配當可能을言明하엿든바去八月一日營業開始以來滿銀의營業狀態는

一、整理未了
二、滿洲財界의不況
三、日本震災의間接影響
四、鮮銀援助의不徹底

等의原因으로豫定의利益을得치못하얏슬뿐아니라嚴密히業績을檢査하면缺損을計上함에至하리라는說까지有함으로到底히一割配當은不可能하게되야中村頭取及河瀨專務兩氏는先般來東京에來하야鮮銀當局과配當問題에就하야協議하얏는바鮮銀에서는鮮銀持株主는八分配當을受치아니하고一般株主는八分配當의諒解를求함이可하다는意嚮을示하얏슴과如한데兩氏는十四日에出發한다하며同行의減配는未免하리라觀測하더라(東京電)

報德銀行開業

整理中의報德銀行은大藏省과日銀에서六百萬圓의融通資金을求하고頭取에는前造幣局長多門禮三郎氏가就任하야陣容을新히하고來十五日부터各支店共히一齊히開業하리라더라(大阪電)

米輸出許可要求

駐日中國代理公使施履本氏는日本政府에서奉天吉林兩省에米十萬石輸出許可를要求하얏다는旨를外交部에報告하얏더라(北京電)

海港正金支店閉鎖

海參威의露國官憲은同地日本各銀行支店에對한壓迫이甚하야正金에서는遂히支店을閉鎖하얏더라(東京電)

私鐵上旬業績

朝鮮合同鐵道의十二月上旬業績을見하면乘車人員四萬七千五百二十六人貨物發送噸數一萬一千四百四十一噸客車收入二萬四千三百五十四圓貨車收入二萬六千百三十八圓雜收入五百三十七圓收入合計五萬一千三十一圓이요一日一哩平均收入은二十四圓二十錢인바此를前旬에比하면乘車人員은一萬七百六人貨物發送噸數는六百八十二噸의增加이며從하야客車收入은二千六百七十三圓貨車收入은一千三百九十圓의增收로合計四千八百五十五圓一哩平均一日二十三錢의增加인데此의主因은最近各線共히米穀의出廻가旺盛함이라더라

東拓朝鮮內貸出

十一月末現在東拓朝鮮內貸出은定期貸出一千二百十三萬三千三百四十一圓年賦貸出二千九百七十九萬五千八百八十六圓合計四千二百二萬九千二百二十七圓인바十月末에比하야二十三萬四千八百四十一圓의增加이라더라

富士紡織今期配當

富士紡織은十二日午後二時東京出張所에서重役會를開하고今期配當案年一割二分(前期二割五分)을決定하고來十九日總會에附議할터이라더라(東京電)

仁川期米 十二月十四日前場 保勢

以後로는二十錢과三十錢幕에서細刻으로相支하다가止價는二十五錢으로後場初付는一文强한四圓二十六錢으로二節은二十九錢이라當地場面은沈靜...로前錢臺로阪地五節十四錢이라當十二十四錢의低價를示한바阪地地九錢이止價라當地亦다시三十五錢인高價로場을止한後氣配는不...今朝阪地電報延着으로付하다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張最根

五丁高價인二十七圓五十錢에初先限도阪地入電이遲함을因하야前節氣勢대로四十六錢에始한바卽時阪地初付는昨止보다十九文激低한三十四圓이라傳하니當地急轉直下二十七圓十錢까지低價이오先限은阪地保勢로二節히三十四圓을傳하엿슴으로二十九錢에始하야彼此守勢中에三十九錢外지少高하엿스나阪地四節四圓을割下三圓九十九錢을傳하更의活動으로三十九錢外지反하야三十五錢에止하다▲第五節當中兩限은亦不成으며先限도閑散한步調로二十九錢에始하야三十錢에止하다

二十七圓二十八錢에止場하니高低差는四十丁이더라

初付	二十七圓五十錢
止價	二十七圓二十八錢
高價	二十七圓五十錢

同日後場

四節	二十七圓二十九錢
五節	二十七圓三十錢
六節	二十七圓二十八錢
七節	二十七圓二十八錢

一節	二十七圓三十圓
二節	二十七圓三十五錢
三節	二十七圓二十九錢
四節	二十七圓二十八錢
五節	二十七圓二十八錢

三節	三四、〇〇
四節	三三、九一
五節	三三、九一
六節	三三、九〇
七節	三三、九三

	三三、九六
	三三、九六
	三三、九七
	三四、〇二

◎朝鮮銀行券(十三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日銀帳尻(十二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以上千圓單位)

◎京城手形交換(十四日)

枚數	三三、三一五
金額	一、四〇二、九三三

◎日本金利(十三日)(一錢單位)

	東京	大阪
金利 無條件	[illegible]	[illegible]
翌日物	[illegible]	[illegible]
月越物	—	[illegible]
六十日	[illegible]	[illegible]
普通割引步合	[illegible]	[illegible]

海外經濟電報 (十四日着電)

英米爲替	四弗卅七仙八分의五(八分의三低)
블	九十六弗八分의一(四分의三高)
아나콘다	三十八弗八分의一(八分의一高)
倫敦銀塊	卅三片十六分의七
米棉	八十錢低

株式市場

京取主力株比較

株名	前日終價	十四日始價	比較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一〇〇、〇〇	—	—
仁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反落 場面閑散

京株賣買價 (十四日)

株名	前場 當限	前場 先限	後場 當限	後場 先限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	—	—	—
鮮銀	—	—	—	—
同新	[illegible]	—	[illegible]	—
殖銀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	—	—	—
貯銀	—	—	—	—
商銀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	—	—	—
漢銀	[illegible]	—	[illegible]	—

株名	前場 當限	前場 先限	後場 當限	後場 先限
同新	—	—	—	—
韓一	—	—	—	—
東拓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illegible]	—	[illegible]	—
鮮土	—	—	—	—
朝紡	—	—	—	—
滿毛	[illegible]	—	[illegible]	—
京電	—	—	—	—
同新	—	—	—	—
電興	[illegible]	—	[illegible]	—
釜蔗	[illegible]	—	[illegible]	—
朝郵	[illegible]	—	[illegible]	—

株名	前場 當限	前場 先限	後場 當限	後場 先限
朝鐵	—	—	—	—
京南	—	—	—	—
金剛	[illegible]	—	[illegible]	—
滿鐵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illegible]	—	[illegible]	—
東亞	一〇〇〇	—	一〇〇〇	—
同新	—	—	—	—
勸信	[illegible]	—	[illegible]	—
朝信	[illegible]	—	[illegible]	—
穀信	—	—	—	—
滿取	—	—	—	—
率信	—	—	—	—

京株賣買高

十四日의京取市場의賣買成立高는如左하더라

甲部	三千二十枚
乙部	—
短期	一千五百六十枚

新昨止價에比하야四十錢高의八十一圓五十錢과同鐘新十錢高의二百九十八圓五十錢을報하고安東安取는十六圓五十錢으로一圓의高騰을報하얏스나亦是保勢의形便이엇슴으로京取市場은連日의活氣도머리를들지못하고短期大新은一圓七十錢의低價인七十九圓七十錢에付하야少高八十圓臺에止하고仁新은三十三圓五十錢의下落을示하고安取는十五圓七十錢과八十錢의步價에比하면五十錢에付하야三十錢에止한바小低이며先限亦是三十四圓六十錢에止하얏슴으로場面은閑散하며其外各株亦保價로賣買關係를示하면短期大新은金調秀白非의各百枚金龍新田의各五十枚와洪股柱吉見中村等의賣에田中三十枚南市川의各六十枚李靑園洛禱等의買로六百枚成立되고仁新은田中賣南買로二十枚씩이며安取는關洛鎬吉見賣에田中買ㅎ百枚成立되고長期京取當限은新田井口賣에白井中村市川買로四十枚先限은吉見賣에成滿買로僅히十枚씩이러라

大阪株式 十四日前場

株名	寄付	大引
大株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商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東紡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大阪株式延取引

大新 付[illegible]　鐘紡新 付[illegible]

大阪綿絲 十四日前場

	寄付	大引
十二月	二八九、七〇	二八九、五〇
一月	二九〇、五〇	二九〇、七〇
二月	二九一、九〇	二九〇、一〇
三月	二九三、二〇	二九一、四〇
四月	二九一、八〇	二九一、一〇
五月	二九三、一〇	二九一、五〇
六月	二九二、九〇	二九三、一〇

仁川期米市場 昨今場面如何

十四日朝大阪商勢入電은短期大緊하게所謂過歲時勢를賦與하야昨今各地步調는年末의氣分이漸

各地穀物市場

十四日前場延取引時勢

京城

十二月中	—	十二月末	—
一月中	—	一月末	[illegible]
現物			

大豆賣買時勢 賣買成立高 一、〇〇〇石

釜山

十二月中	—	十二月末	[illegible]
一月中	[illegible]	一月末	[illegible]
現物			

大豆賣買時勢 賣買成立高 穀良 [illegible] 神力 [illegible] 一、〇〇〇石

大邱

十二月中	—	十二月末	—
一月中	—	一月末	[illegible]
現物			

大豆賣買時勢 賣買成立高 穀良 [illegible] 神力 [illegible] 一、〇〇〇石

群山

十二月中	—	十二月末	—
一月中	—	一月末	[illegible]
現物			

大豆賣買時勢 賣買成立高 穀良 [illegible] 神力 [illegible] 三、〇〇〇石

各地期米比較

	前日後止	十四日前寄	比較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大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東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神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下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桑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京取短期取引

十四日	前場	後場
大新	[illegible]	[illegible]
仁新	[illegible]	—
安取	—	[illegible]

今番새로된 皮膚病退治

◎藥◎化◎學◎應◎用 데ー무水

바른곳은目前에곳낫소

하날한편에僅히陽傘만치한條件이出現하면饑饉이라할것업시流失되는고로이와갓치皮膚病도ㅡ하고잇스면하날一面에流蔓갓한惡風이가득하야皮膚病도처음은患部가적으나無心하고잇슴에漸次擴大하고大槪는傳染力이速하며自己皮膚에蔓延하야數가늘고搔痒하고氣惡하야日夜苦悶難堪할뿐아니라皮膚呼吸의障害가되야神經衰弱、腸病、發熱、血行病其他意外의餘病을이루게하는것이나、아아火災가낫다면곳喞筒(ポンプ)을持出하야小火時에防止하는모양으로皮膚病난이는곳『데ー무水』를바르세셔簡單히速히곳치십시오

新威力! 從來의平凡한皮膚病藥은엇지만하야도効力이업다고世人이不滿足을感하는故로皮膚病退治를目的하야今番此高級藥『데ー무水』가出現하얏슴니다『데ー무水』의皮膚病一切에對한新威力은永年困難하든頑固症에도着々經驗하시와一日이라도速히곳치십시다初期輕症은全治速히退治합니다

特◎長◎

△쓰리지도안코
△압흐지도안코
△內攻치도안코
△발나서더럽지안코
△눈에도안보이고
◎用法이簡便하고도
速히낫소

데ー무水의作用

皮膚病의黴菌을殺滅하고消炎하며痛痒을防止하야收斂하야患部를縮少治癒케하는것으로安全無害

=効力이强하고도安全無害= 安心하고쓰십시오

◎迷信打破!

皮膚病을곳치러면도로허못의이가잇다는在時代的說에迷惑하는이가往々히잇스나殺菌解毒作用이特優한『데ー무水』를바르면皮膚病이나흘뿐아니라健康은오히려增進하고精神까지爽快합니다

=十治効能= ◎濕疹◎頑癬◎田蟲◎水蟲◎疥癬◎汗疹◎吹出物◎火傷◎頭瘡◎陰部瘡◎白禿◎瘡◎瘍◎寒風◎皮膚痒◎凍傷◎皮脂漏等의皮膚病一切에顯效가잇고特히皮膚를柔軟潤澤케하고地膚를調節하는故로荒性잇는이에게더욱좃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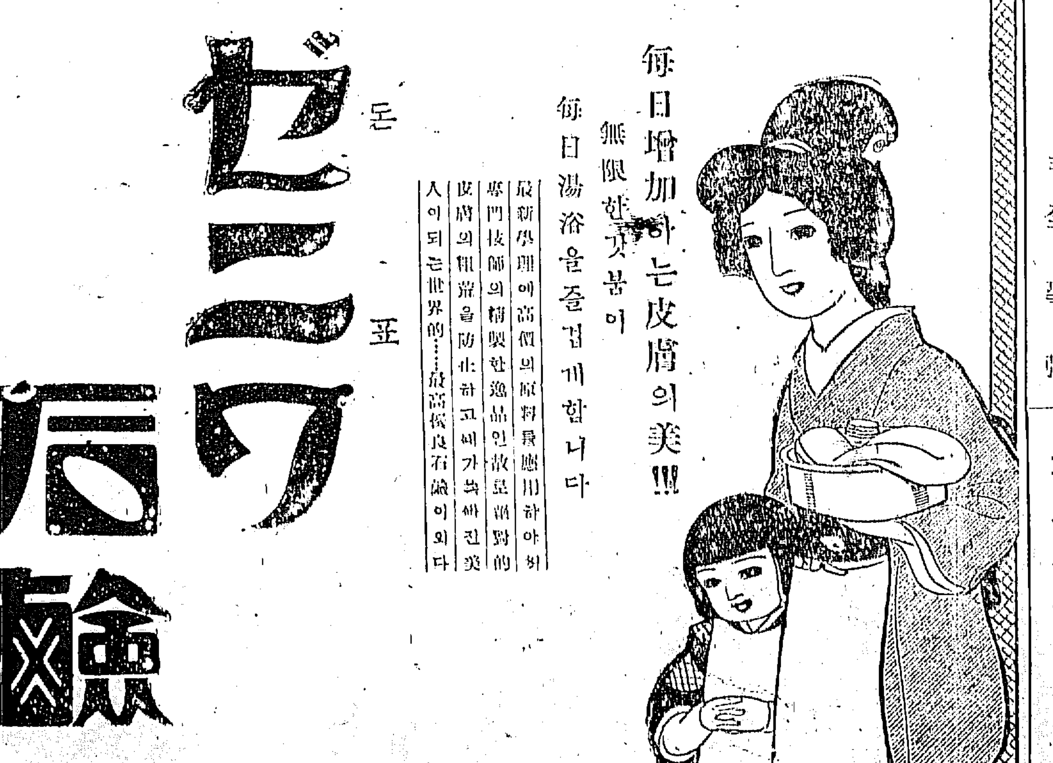
◎全國各地=到處有名藥店에잇소

『데ー무水』藥價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直接注文 今回새로發表한新藥인故로아즉分布되지못한地方도잇스니注文하시오料金을添付하야直接本舖에注文하시면一品이라도郵送합니다品切等時에는代金만으로매우優秀한良藥을入手하시게됩니다

今回의震火炎에依하야東京本店은全燒하얏스나僥倖全員無事하고大阪支店에서極力製劑頒布事業에當한故로當分間은支店에注文하심을願합니다

大阪北區木幡町二十五番地
東京藥院支店
電話北三七一八番
振替大阪五〇八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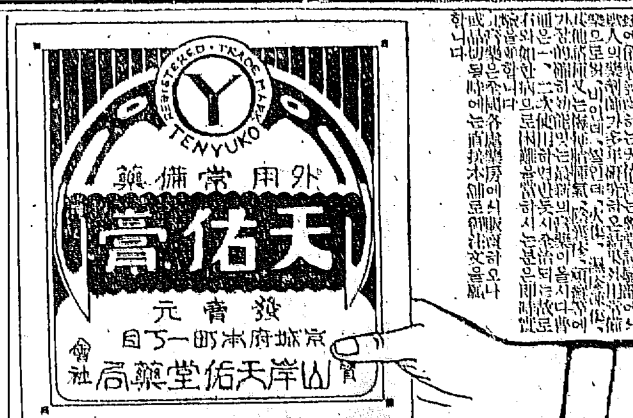


聖和洋服店

大邱府西城町一丁目四六

主 金聖翊

◎天佑藥의偉力◎



定價 小鑵 拾錢 中鑵 貳拾錢 大鑵 五拾錢

大邱令開市廣告

例年보다一層盛大히來一月八日부터開市하오니四方僉彦은多數來臨하시옵소서

大邱藥業組合
大邱漢藥組合
大邱令市振興會
告白

各藥에見効치못한人
이제비로소낫게되시겟소

神經痛·婁麻質斯
▲疝氣·腰脚痛神藥
▲安樂散

京城長樂園